

# 캐릭터 중심으로 본 어린이 만화연대기 연구\*

김병수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한국만화100주년 기념전시회의 어린이 만화섹션을 기획, 진행하면서, 캐릭터를 통해 본 어린이만화의 연대기를 연구 분석한 것이다. 어린이 만화에서 캐릭터는 내러티브의 서사적 구조보다 더 큰 역할과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만큼, 캐릭터를 기초로 한 접근법은 어린이 만화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와 전시기획진행을 위해서 한국만화100주년 위원회, 어린이만화연구회 아이처럼, 네이버 만화 내 사랑 카페\*와 함께 주요 어린이 만화캐릭터 7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태동기와 해방공간의 1950년대 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등 대략 10년을 주기로 7개의 영역으로 연대기를 구분하여 간략한 역사를 정리했다.

단순한 연대기 나열이 아니라 당대에 회자된 만화캐릭터와 작가를 중심으로 시대적 의의와 반향, 특성 등을 따졌으며, 세대를 뛰어 넘어 사랑 받아 온 어린이 만화와 캐릭터에 대해 입체적인 조명을 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작가와 작가, 캐릭터와 캐릭터 관계의 유사성과 인과관계를 추궁하고 유추하여 어린이 만화 캐릭터가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유구한 만화역사의 전통과 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밝혀 보고자 했다.

끝으로 어린이 만화에 있어서 캐릭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산업적 가치를 확인하면서 순수창작어린이 만화의 방향성과 전망을 냉정하게 되짚어 향후 우리나라 만화계에 어린이순수창작만화가 활성화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주제어 : 만화, 한국만화100주년, 어린이만화, 만화캐릭터

## I. 서론

한국만화 100년을 맞아 국내 만화계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부터 3개월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한국만화100주년 기념

전이 열리는데, 한국만화역사와 다양한 장르의 만화전시가 주요 테마다.

본 연구는 한국만화100주년 기념전 어린이만화 전시 섹션을 준비하면서 수행한 과제를 토대로 어린이만화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 어린이 만화

1) 한국만화100주년 기념전시 : 한국만화100주년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2009년 6월 2일부터 3개월간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한국만화연대기를 정리한 전시와 시사만화, 순정만화, 어린이만화, 웹툰, 대안만화, 미술과 만화 등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 만화내사랑 카페(네이버) : <http://cafe.naver.com/sas7273.cafe>

의 연대기적 의의와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어린이만화연구회 아이처럼,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독자 만화 카페 '만화 내 사랑'과 공동으로 한국만화역사상의 주요 어린이 만화캐릭터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만화수집의 최고권위자 오경수선생의 추천을 받았으며, 한국만화100주년전시위원회 총괄디렉터인 박재동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한국만화박물관 이용철 전학예실장 등의 자문을 거쳤고, 어린이만화전문가, 한국만화100주년 준비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만화캐릭터를 다수(70개) 선정하였다.

선정된 70개 캐릭터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조명하기에는 본고의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남긴 '캐릭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한다.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시대적 의미와 현황을 캐릭터별로 상세히 조명하였으나 70년대 이후는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과 캐릭터들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쳤다. 이는 70년대 이후의 인기 캐릭터를 창조한 작가들이 대부분 생존해있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합의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자칫 잘못된 역사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고자하는 의도에서다.

만화에 있어서 캐릭터(만화 등장인물)가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매우 크다. 캐릭터 없는 만화는 주인공 없는 드라마나 영화와 같다. 만화평론가 김이랑은 『한국만화의 선구자들』에서 김종래에 관해 다루면서 캐릭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한국 만화사에 한 획을 그은 김종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이렇다 할 대표 캐릭터가 없다. (중략) 그렇게 많은 만화를 그렸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대표 캐릭터를 남기지 못한 것은 시대극을 선택한 그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운명이었다.’<sup>2)</sup>

대표적인 캐릭터를 남기지 못한 것이 한 만화평론가에게서 ‘안타까운 운명’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만화에 있어서 캐릭터의 힘은 절대적이다.

특히 어린이 만화에 있어서 캐릭터는 ‘만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 다수의 어린이 만화에서 작품 제목에 캐릭터명을 넣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만화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하겠다.

국내에서 캐릭터와 관련된 어린이 만화의 선행 연구는 미진하며 ‘캐릭터 중심의 어린이 만화’ 연구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어린이 만화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만화역사서 등을 통해 그 일면과 단면을 엿볼 수 있을 뿐, 전반적인 연구 수준과 성과는 걸음마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국내의 어린이 순수창작만화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전성기를 나타내는 연대기 구분은 일반적인 10년 단위의 상투성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혁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중심으로 시대분류를 시도했다. 최초의 어린이만화가 등장한 1925년을 기점으로 이 논문이 쓰여진 시점인 2009년까지 85년간을 모두 5개의 영역으로 아래와 같

2) 김이랑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104p

이 구분하였다. 단지 도식화된 시대 구분을 하지 않고 여명기, 황금기, 수난기, 분화기, 침체기 등 당대의 어린이만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을 소제목에 담았다.

### 1기(여명기) 1925년 ~ 1945년

일제 강점기. 최초의 어린이만화로 기록된 1925년 안석주의 <씨동이의 말타기>부터 해방 전까지 어린이만화의 태동기에 활약한 주요 캐릭터를 살폈다. 어린이만화가 처음 태동하던 시기이고 '캐릭터'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시대이기도하다. 한편으로는 일제의 검열과 수탈로 인한 암흑기이기도 했다.

### 2기(황금기) 1945년부터 1961년

1945년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직전까지로, 만화가 어린이 문화로서 본격적으로 꽃피운 시기이다. 명랑, 순정, 시대극, SF, 서부극 등 다채롭고 다양한 형식의 만화들이 대거 선보였으며, 현대적 의미의 만화가 형식과 내용면에서 비로소 꼴을 갖췄다. 텔레비전, 게임, 영화, 테마파크 등 오늘날 볼 수 있는 어린이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만화'가 차지하는 어린이문화에서의 비중은 가히 절대적인 것이었다.

### 3기(수난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합동출판사와 같은 독점자본이 출현하였으며 어린이 만화가 '불량식품'의 일종으로 치부되던 시기. 한편으로 명랑만화와 순정만화가 장르적 완성을 이

룩했다.

### 4기(분화기) 1980년대

대본소만화가 확산되면서 만화방이 어린이들의 공간에서 청소년이상 어른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가던 시기. 성인만화, 청소년만화, 순정만화, 잡지만화, 대본만화, 단행본, 학습만화 등이 확실한 자기 영역을 구축했다. 어린이만화는 보물섬과 요요코믹스 등으로 대표되는 브랜드로 편입되거나 차츰 축소되기 시작했다.

### 5기(침체기) 1990년대 이후~ 현재

일본식 만화잡지 시스템이 본격 상륙하면서 아이큐점프와 소년챔프류의 소년지 중심의 코믹스가 주류를 형성했다. 독자 연령대가 차츰 높아지면서 엄격한 의미의 어린이만화는 학습만화로 공간 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순수창작 어린이만화는 명맥을 유지하기도 버거워지고 '학습만화'가 모든 어린이만화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고래가 그랬어, 개똥이네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교양지를 통한 어린이 순수창작만화가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펴고 있다.

## II. 본론

### 1. 어린이 만화에 있어서 캐릭터의 중요성

성인만화에 비해 어린이 만화는 캐릭터의 비중이 매우 높다. 청소년 이상의 성인만화는 내러티브

즉 이야기 자체의 구조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반면, 어린이 만화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이 극의 중심에 놓인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만화의 등장인물에 대한 동질감과 공통성, 동경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로 갈수록 캐릭터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유아프로그램인 텔레토비, 토마스와 친구들, 방귀대장 뽕뽕이, 뽀로로와 같은 작품 속 캐릭터들은 '이야기' 이전에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다수의 어린이 만화는 제목에 주인공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강가딘, 꺼병이, 원시소년 토시, 로봇찌바, 두심이 표류기, 라이파이, 악동이, 짱뚱이의 일기, 울식이는 재수 없어, 귀신장군 무동이 등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어린 독자들에게 친숙한 만화들은 대체적으로 캐릭터 명을 제목에 넣고 있다. 캐릭터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는 것은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유리함은 분명하다.

이는 반대로 어린이 만화를 창작할 경우 제목에 주인공 이름을 넣는 것이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만화 100주년 전시 어린이 만화섹션을 준비하면서 굳이 '캐릭터를 통해 본 어린이만화연대기'를 정리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린이만화는 캐릭터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며, 유명되고, 이해되어진다.

## 2. 70대 어린이 캐릭터 선정

### 1) 선정절차

한국만화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어린이 캐릭터를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랐다.

1. 어린이만화 원작 캐릭터여야 할 것.
2. 100주년 위원회 전시위원회, 어린이만화연구회, 만화 내사랑, 개별 전문가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하는 캐릭터는 배제할 것.
3. 당대에 회자되었던 인기 캐릭터일 것.
4. 작가 한 명당 대표 캐릭터는 1개만 인정.
5. 성인용까지 아우르지만 어린이 캐릭터도 있는 것은 인정(까치, 코주부 등)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추천된 후보는 모두 213개이며 중복되는 캐릭터와 어린이만화캐릭터로 인정되기 어려운 캐릭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0개의 캐릭터를 선정하여 100주년 위원회로 최종 선정을 의뢰하였다.

- 어린이 만화연구회 아이처럼 (참여 작가 20명) : 추천 42개
- 만화내사랑 (참여 댓글 113개) : 추천 88개
- 오경수 추천 : 73개
- 박재동 추천 : 10개
- 최종 후보 : 120개

이에 100주년 전시위원회에서는 70개의 캐릭터를 확정하였으며 결과는 별첨하였다.

### 2)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 어린이 만화캐릭터

## 선정 결과 별첨

선정결과를 별첨의 표로 정리하였으며 주로 인물을 누렸던 전성기, 캐릭터명, 작가명, 최초발표연도, 작품제목, 발표매체 순으로 보기 쉽게 구분하였다.

### 3. 캐릭터로 본 어린이만화 연대기

#### 1) 1기(여명기) 1925년 ~ 1945년 : <씨동이>, <신동이>, <복남이>, <똥똥이>를 중심으로

어린이 만화역사의 여명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1925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이다.

1925년 이후부터 해방 전후까지 우리나라의 어린이만화는 여명기이기도하지만 사실상은 암흑기에 가까웠다. 오늘날에는 ‘만화 = 어린이 문화’라는 등식이 자연스럽지만 만화의 태동기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등식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은 만화가 성인 시사만화로부터 출발한데서 오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 만화가 연령대로 구분되는 ‘장르’로서 분화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일제 강점기말에 해당하는 40년대 초반에는 전국가적인 전쟁물자수탈정책이 자행되고, 검열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매체들이 폐간, 휴간하는 바람에 ‘만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만화뿐만 아니라 문화전반의 ‘암흑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당시를 대표하는 어린이 만화 캐릭터를 선정한다는 것도 모험에 가깝다. 증언을 해줄 사람도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문헌에 나타난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따른 선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의거하여 여명기를 장식한 어린이 만화 대표적인 캐릭터로 안석주의 <씨동이>, 마균의 <신동이>, 최영수의 <복남이>, 노수현의 <똥똥이>를 선정했다. 이상의 작품들은 여명기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최초’라는 수식을 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형식을 갖춘 최초의 만화로는 1909년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영의 한 칸 만화가 꼽힌다. 근대만화가 태동한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사만화가 현대적 만화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sup>3)</sup>

최초의 어린이 만화에 대해서 만화평론가 손상익은 『한국만화통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린이』(1923.3.2~1931.2.20)에는 가끔 교훈적인 내용의 2~4칸짜리 짤막한 만화가 잡지기사 상단에 실렸다. 창간 2주년기념호인 1925년 3월호에는 안석주<sup>4)</sup>의 6칸짜리 만화 <씨동이 말타기>가 실렸고 1927년 신년호에는 작가미상의 <활동만화 活動漫畫>가 3쪽에 걸쳐 22칸으로 게재됐다.

3) 유럽에서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764)를 최초의 만화가로 꼽고 있다.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시공사, 1998, 21p.

4) 석영 안석주(1901~1949)는 우리 대중문화사에서 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유명한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작사가이기도 하다. 그는 만문만화 작가, 만화가, 삽화가, 시인, 소설가, 희곡 및 시나리오 작가, 화가, 미술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안석영은 젊은 시절 카프KAPF의 초기부터 활발히 활약했고 신간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일제 강점기 후반에는 친일 영화를 만들어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신명적. 모던뽀이, 京城을 거닐다 - 漫文漫畫로 본 근대의 얼굴 현실문화연구, 2003, 1, 27.

만화평론가 박인하도 어린이 교양잡지 개똥이네 놀이터 2009년 1월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근대만화의 역사 중 첫 어린이 만화로 이야기되는 작품은 1925년 아동잡지 <어린이> 창간 2주년 기념호에 실린 안석주의 <씨동이의 말타기>이다.<sup>5)</sup>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면 <씨동이>는 최초의 어린이 만화 캐릭터가 되는 셈이다.



<그림 1> 안석주. 씨동이의 말타기 부분. 『어린이』, 1925. 3.

1920년대 발행된 어린이잡지 16종 가운데 만화가 다루어진 곳은 『어린이』와 『아희생활』 단 두 곳이다.

<씨동이 말타기>가 연재된

『어린이』는 몇몇 자료가 남아 있지만 그나마 『아희생활』은 1927년 12월호(통권21호)에 실린 지면상단만화가 유일한 것이어서 단지 만화를 다루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sup>6)</sup>

<씨동이>는 당시 신문, 성인, 아동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만화를 연재하는 인기 절정의 작가 안석주가 창작한 것으로 6칸 형식의 만화다.

마균의 <신동이>는 1931년 8월 14일부터 다음 해 3월 1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신동이의 모험>의 주인공이다. 말을 할 줄 아는 개가 주인공 신동과 함께 등장하고 있어 최초의 동물 캐

릭터로 볼 수 있다.

마균은 사실 우리 만화사에서 회자될만한 이름 있는 작가는 아니다. 한국만화통사의 저자 손상익은 마균의 <신동이의 모험>이 투고 형식을 빌리고 있어 ‘필명’을 사용한 아마추어 작가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신동이의 모험>에 동물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선정하게 되었다.

어린이 만화와 뗄 수 없는 동물 캐릭터는 우리 어린이만화 역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며 나름대로의 계보를 형성해 왔다.<sup>7)</sup>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어 전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어린이 만화 캐릭터 가운데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것보다 결코 적지 않다.

<복남이>는 1932년 4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된 최영수의 <복남의 탐험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다. 영리한 원숭이가 주인공 복남과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 갖가지 모험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추어일 것으로 짐작되는 마균과 달리 최영수는 한국만화의 역사에 몇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른바 인기 작가였다. 데뷔작인 <복남의 탐험기>는 ‘어린이만화 연재’를 완전히 정착시킨 작품으로 기

7) 참고로 어린이만화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동물만화캐릭터는 다음과 같은 계보를 형성한다. 김용환<토끼와 원숭이> 1940 : 동화각색-계몽, 교육만화 / 정운경<진진돌이> 차형<깃뚝개>1970 : 종간의 대립-반공만화 / 이항원<이겨라 벤>1980 : 애완동물-가족만화 / 김영하<펭귄동자> 김수정<아기공룡둘리> 김동화<곤충소년> : 동거동물-공상, 일상 만화 (출처 : 박석환, 『동물소재만화-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있다.』 코코리뷰, 한국만화문화연구원, 2000.

5) 박인하. <만화, 내 아이에게 읽혀도 되는 거야?> 개똥이네 놀이터. 2009.01.

6)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상. 시공사. 1999. 170p.

록되고 있으며 '어린이만화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에 다양한 만화를 발표해 인기를 끌었다. 최영수는 만화 문화에 관한 이론을 나름대로 확립했던 이론가로 여러매체에 만화 관련 글을 기고하는 등, 우리 만화사에 많은 업적<sup>8)</sup>을 남기기도 했다.

<똥똥이>는 조선일보에 연재된 최초의 신문연재 세로 4칸 만화이자 당대 최고의 인기 만화였던 노수현의 <멍텅구리>의 아들이다. 『소년중앙』 창간호(1935.1.1)부터 <멍텅구리>의 아들인 <똥똥이>를 연재, 우리나라 최초로 만화주인공 2대가 11년의 시차를 두고 연재하는 기록을 세웠다. 만화주인공이 대를 이어 등장했던 사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드물다.<sup>9)</sup>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 어린이 만화는 문자 그대로 태동기이자 여명기이고 한편으로 암흑기였다. 일제의 점령과 수탈, 매체의 잦은 폐간 등으로 안정적으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가는 작품을 구축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캐릭터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던 원시의 공간에서 <씨동이>, <신동이>, <복남이>, <똥똥이>는 각각의 최초의 시대를 여는 어린이 만화의 새벽을 밝히고 있다.

1940년대에는 주요매체들이 줄줄이 폐간당하면서 문화계전체가 일제 말 전시체제의 암흑기로 돌입하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된다. 해방은 일제로부터의 민중의 해방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해방이기도하여 이는 곧 만화의 해방이자 어린이 만화에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 2) 2기(황금기) 1945년부터 1961년까지 : <코주부>, <꺼꾸리군 장다리군>을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기까지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유래없는 대격변의 시대를 맞게 된다. 해방공간의 혼탁한 한반도 정세는 급기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고 이승만정부의 독재와 뒤이어 들어선 민주정의 혼란은 결국 군사 쿠데타를 부르고야 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유래없는 어린이만화역사의 황금기로 기록된다. 여명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어린이만화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하지만 시사만화를 중심으로 한 성인만화가 퇴조하고 '돈벌이'가 되는 상업만화로서의 어린이만화가 범람하면서 장르로서 명실상부한 독점적 시대를 마련한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는 단연코 어린이 만화의 시대였다.

이 시기는 '캐릭터'로서의 만화주인공도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학원』(1952년 11월 창간)에 연재된 김용환의 대표 캐릭터 <코주부>의 어린이 버전이 등장하는 <코주부 삼국지>와 김성환의 <꺼꾸리군 장다리군>이다.

<코주부>는 한국 근대만화의 개척자로 알려진 김용환의 대표적인 캐릭터로서 '1945년 9월 6일 창간된 영자신문 『서울 타임즈』에 시사연재만화로 시작<sup>10)</sup>되었으며 한국전쟁 중 1952년 <코주부 탐정>과 <코주부삼국지> 등의 어린이만화로도 창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오늘날 회자되는 '만화 캐릭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캐릭터로 평가받고

8)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상, 시공사, 1999, 186p.

9)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상, 시공사, 1999, 242~243p

10) 락대원,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40p

있다.

손상익이 쓴 『한국현대예술사대계』에는 <코주부삼국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코주부 삼국지>는 원전을 코믹하게 각색, 캐릭터의 신체 일부가 과장된 전형적인 만화체 그림을 채택하고 있다. 딱딱할 수밖에 없는 춘추전국시대의 전장과 등장인물을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처리하여 청소년들에게 만화 보는 재미를 만끽하게 했다. <코주부 삼국지>는 전쟁에 찌들린 우리 청소년에게 용기와 기백, 꿈을 심어주는 만화로 제 역할을 했다.<sup>11)</sup>

김성환의 <꺼꾸리군 장다리군>은 엄격한 의미에서 어린이만화 캐릭터라기 보다는 청소년물에게 더 가깝지만 당시 어린이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만화 캐릭터 역사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손상익은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김성환의 <꺼꾸리군 장다리군>은 전쟁통에서도 명랑하고 발랄한 심성을 잃지 않고 자라는 두 명의 소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역시 커다란 인기를 얻었다. <꺼꾸리군 장다리군>은 우리 청소년 만화 가운데 최초로 인기 캐릭터에 의한 '스타 시스템(star system)'을 도입한 만화라는데도 의의가 있다. 이 만화는 1953년 『학원』 잡지에 연재를 시작, 1955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연재를 종료한 뒤에도 단편만화의 주인공으로 인기를 지속해 1977년 영화감독 석래명이 메가폰을 잡은 실사영화로 만들어져 개봉되어 청소년 관객들이 만원상태를 이룬 바가 있다.<sup>12)</sup>

11) 손상익 외.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1. 시공아트. 1999. 396p

1960년대 초반은 어린이만화의 최고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창작물이 쏟아져 나왔고 만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초기의 순정만화, SF, 명랑만화, 역사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험만화, 스포츠물, 탐정물, 괴기물 등등 오늘날 어린이 창작만화에 비해 오히려 풍부할 정도로 다채로운 콘텐츠와 캐릭터를 쏟아냈다.

박인하는 『골방에서 만난 천국』에서 60년대 초기 어린이만화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이는 신문시사만화등을 제외하고 성인만화문화가 전무하던 시절 곧 당시 우리만화계 전체의 장면이기도 하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한국만화의 정착기를 이끌어간 작가로 김용환, 김성환, 신동헌, 신동우, 박광현, 김종래, 박기당, 박기정, 방영진, 김기울, 김경언, 오명천, 안의섭, 권영섭, 엄희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략) 약화<sup>13)</sup>된 형태의 대중적인 만화작가로는 김경언과 김기울을 꼽을 수 있다. 사극의 계보에는 박광현이 우뚝하다. 박광현은 탁월한 필력으로 전통사극의 세계를 개척했다. 박광현의 그늘에서 김종래가 탄생했다.

이 시기 가장 정열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개척한 작가는 신동우와 박기당이다. 신동우는 약화된 캐릭터를 주로 등장시켰으며, SF에서 모험물 그리고 사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개척한 작가다. 박기당은 괴기물, SF, 사극 등을 주로 창작한 작가

12) 같은 책. 396p

13) 약화 : 섬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재충의 모양을 간단하게 그린 그림(저자주) 박인하. 『골방에서 만난천국』 인물과 사상사. 2005. 41p



로 강렬한 터치가 특징이다.

역사적인 전통에 기반한 서사만화는 박기정에 의해 개척되었다. 만주에서 일본군과 대항해 벌여 지는 소년의 활약을 그린 <폭탄아>나 일본에서 권투로 성공한다는 <도전자> 등은 식민지 체험이 어떤식으로 만화에 녹아들어가 대중의 요구에 부응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김성환은 '고바우', 안의섭은 '두꺼비'라는 최고의 히트 캐릭터를 배출한 신문만화가다. 산호<sup>14)</sup>는 <라이파이>라는 SF활극으로 60년대 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방영진은 <약동이와 영팔이>로 청소년 학원물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권영섭, 최상록, 엄희자, 조원기, 장은주 등은 소녀 독자들을 위한 작품을 주로 창작한 작가들이다.

그러나 60년대 초반 다양한 장르로 확산된 한국 만화는 5.16 군사 구테타 이후 시작된 사전검열제도와 1966년 합동출판사가 군소출판사를 인수하며 확립된 독점체제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sup>15)</sup>

2기와 3기 사이의 만화작품들은 다른 세대 구분과 달리 엄격한 시대 구분을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면이 많다. 2기인 50년대와 60년 초반 창작되어 3기인 60년대 중반까지 연재 혹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인기를 끌고 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를 61년까지로 국한한 이유는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와 이로 인한 검열의 피해가 우리 만화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이 부분은 3기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50년대 후반의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김종래의 <금준이>(엄마찾아 삼만리)와 산호의 <라이파이>, 고우영의 <짱구박사>를 꼽을 수 있다.

김종래의 <금준이>는 캐릭터 자체만으로는 개별적인 위치를 확고 차지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많지만 원작 「엄마찾아 삼만리」의 파급력이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9년 발표된 김종래의 대표작 중의 대표작 「엄마찾아 삼만리」에 대해서는 김이랑이 쓴 다음의 글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그림 2> 김종래.  
엄마찾아 삼만리.  
만화세계사. 1959.

1959년 그는 대표작 중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엄마찾아 삼만리>를 발표한다. 슬과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버지 탓에 팔려간 엄마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아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그린 이 만화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 만화사상 유례없

는 10판 출간의 신화를 남기며 1964년까지 오년간 장수한다. 1994년 체신부에서 만화우표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엄마찾아 삼만리>를 포함시킨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이 만화가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sup>16)</sup>

같은 해(1959년) 발표된 산호의 <라이파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만화계를 진일보시킨 작품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만화방 시대의 개막을 알

14) 본명은 김산호

15) 박인하. 『콜방에서 만난천국』. 인물과 사상사. 2005. 41p, 43p

16) 김이랑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99p~100p

렸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고유브랜드의 첫 SF 만화인 동시에 1960년대에 '신드롬'을 일으킨 공전의 히트작이기도 했다.

근대 우리만화의 효시처럼 회자되는 <밀림의 왕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만화계와 작가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본만화표절 문제에 관해서도 당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산호는 박재동이 쓴 '남이 안하는 것을 하는 작가'라는 꼭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만화 베끼는 게 너무 많았어. 내가 제일 경멸하는 거지. 정말 꼴보기 싫었어.” “남이 하는 것은 안 한다. 나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한다.’ 이게 내 주의야.” 17)

<짱구박사>는 원래 1957년 작가의 형인 고일영이 『만화학생』에 연재하던 것을 사후 1959년부터 고우영이 이어 받아 연재한 작품으로, 형제가 이어서 그린 진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18)

고우영은 형이 사용한 필명 '추동식'에 이어 '추동성'이란 필명을 사용하여 <짱구 박사>를 연재했는데 1960년대 최고 인기작 중의 하나였다.

<짱구박사>는 초등학교 아들을 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말썽을 다 피우는 캐릭터다. 당시 명랑만화의 대부분의 캐릭터가 어린이아이였던 것에 비해 대단히 파격적인 설정이었다.19)

그러나 고우영은 어린이만화보다는 <임격정>, <삼국지>, <수호지>, <일지매> 등으로 1960년대가

후 새롭게 정립된 우리나라 성인만화의 개척자로서 더 유명하다. 나아가 1961년부터 1979년까지로 상정된 3기 수난기의 군사정권의 검열과 합동출판사의 독점의 횡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겪었다는 점에서 한국만화 수난사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 3) 3기(수난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 명랑만화 캐릭터의 전성시대

엄격히 말해 1960년대 중반까지는 어린이만화의 황금기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우리 만화사에 중요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권영섭의 <봉선이>, 박기정의 <훈이와 미미>, 방영진의 <약동이와 영팔이>, 신동우의 <홍길동>, 김경언의 <의사 까불이> 등 기라성 같은 캐릭터들이 어린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초창기 순정계 만화계의 거목 권영섭은 1960년 최초의 순정만화인기 캐릭터 <봉선이>를 창조해내게 된다. 순정만화에 정통한 만화평론가 박인하는 다음과 같이 <봉선이>의 시대사적 의의를 기술하고 있다.

1960년대를 풍미한 권영섭의 인기작 '봉선이' 시리즈는 착하고 귀여운 소녀 '봉선이'를 내세워 히트한 첫 번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봉선이'는 첫 시리즈인 <울밑에 선 봉선이> 이후 조금씩 성격과 생김새를 달리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봉선이'는 최초의 순정만화 히트 캐릭터인 셈이다.20)

김경언 어린이만화의 대표작 <의사 까불이>는

17) 박재동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129p~130p

18) 한영주. 『다시 보는 우리 만화』. 글은 그림말. 2001. 52p

19) 손상익, 한영주.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2. 시공아트. 1999. 338p

20) 박인하. 『골방에서 만난천국』. 인물과 사상사. 2005. 84p.

어리지만 영리한 의사 <까불이>와 성격 사나운 간호사간에 펼쳐지는 사건과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중략) 특별한 능력으로 악당을 무찌르고 사건을 해결하는 영웅적인 이미지에, 엉뚱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말쑥꾸러기를 합쳐 놓은 독특한 성격의 캐릭터다.<sup>21)</sup>

주로 어린이 만화를 그렸던 김경언은 <의사 까불이>외에 사실 <칠성이>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로 더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칠성이> 시리즈는 워낙 많은 시리즈와 다양한 편수로 인해 집중도 면에서 <의사 까불이>가 오히려 김경언의 작품 세계를 대표한다는 판단이 들어 선정되었다.

그는 만화적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들을 그렸으며 70년대 활짝 꽃피운 「명랑만화」의 초창기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린이 만화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박기정의 <훈이>는 1963년에 발표된 『흰 구름 검은 구름』에 처음 등장하여 1965년 스포츠 만화 『도전자』를 통해 당대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캐릭터다.

『흰 구름 검은 구름』, 『도전자』 속의 <훈이>는 일본에서 성장해 가는 재일동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박기정은 해방이후 재일동포 문제를 다룬 최초의 만화가로 불리고 있다.<sup>22)</sup>

소재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창조한 새로운 인물들 즉 캐릭터의 파격성이다. 이분법적인 선악구조 속의 캐릭터만 창조하던 당시 만화계에 반항아 <훈이>는 ‘개성적이고 복잡한 인물의 성격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

문’이다.’<sup>23)</sup>

박기정의 <훈이>는 ‘다른 한편으로 한 작가의 여러 만화를 관류하는 고정된 주인공으로, 이후 이상무의 <독고탁>, 이현세의 <까치>에까지 이르는 우리 만화의 한 지배적 전형을 확립하는 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sup>24)</sup>

박기정은 이상무, 이우정, 이두호 등 1970년대 이후 우리만화계에 중심축을 형성한 다수의 만화가를 배출하는 등 후진 양성에도 힘쓰는 한편 그의 만화에 매료되어 만화계에 입문한 작가들도 다수 있어 오늘날 만화작가들에게 가장 존경 받는 원로작가 중에 한 명이다.

방영진의 <약동이>는 1963년 발표된 『약동이와 영팔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약동이와 영팔이』는 주인공이 고교생이기 때문에 언뜻 청소년 만화로 이해될 수 있으나 아동만화를 그려보라는 부친의 권유로 구상하게 된 것이 <약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만화에 분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다. <약동이>가 처음 등장하는 작품은 1963년의 『약동이와 영팔이』가 아니라 1961년도에 나온 <탐정 약동이> 시리즈를 통해서였다. <약동이>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돋움한 것은 생활명랑만화라는 장르를 정착시킨 『약동이와 영팔이』를 통해서였다. 모두 2부 40권으로 발행된 『약동이와 영팔이』는 1973년 동료들이 수여한 다음의 ‘동인상’의 글귀에서 그 위상과 시대적 가치의 일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남의 작품을 평함에 인색하기 그지없는 우리들

21) 한영주, 『다시 보는 우리 만화』, 글은 그림발, 2001, 42p

22) 정준영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85p

23) 같은 책, 87p

24) 같은 책, 87p



<그림 3> 방영진. 약동이와 영팔이. 크로바문고. 1962.

상경한 네명의 고교생 약동이와 영팔이, 똥똥이와 흘죽이의 유학생살을 그린 만화. 다닥 다닥 붙은 짐들과 좁은 골목길, 공동 수도와 공동 화장실 등 1960년대 달동네 판자촌의 풍경이 정겹고, 그 속에서 알뜰 살뜰 살아가는 네명의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sup>26)</sup>

신동우의 <홍길동>은 1965년부터 3년간 『소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풍운아 홍길동」의 주인공이다. <홍길동>은 만화로도 당대를 풍미했지만 형인 신동헌에 의해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만화영화로 제작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홍길동>은 신동우 이전, 어린이 잡지 『소년』 1940년 11월호부터 정현웅이 36칸짜리의 장편연재 만화 <홍길동>을 이미 실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홍길동> 그후 돌꽃 컴퍼니에 의해 <돌아온 영웅 홍길동>으로 1995년 다시 한번 제작되는 등 조선시대 이후 가장 오랫동안 리메이크되고 각광

받는 캐릭터라 하겠다. 동료 몇 사람은 선생님의 위 작품이 셋별처럼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sup>25)</sup>

간략한 내용은 『다시 보는 우리 만화』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같은 고향에서

받는 캐릭터라 하겠다.

<홍길동>은 중국의 손오공, 일본의 아톰에 필적할만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지닌 캐릭터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재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 어린이 만화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데, 어린이 만화는 잡지로 그 무대를 옮기고 상대적으로 검열의 눈길에서 자유로운 명랑만화가 붐을 일으키게 된다.

어린이 만화잡지 시대를 열어간 것은 『새소년』, 『어깨동무』, 『소년중앙』 이상의 트로이카 체제였다.

1964년 창간된 『새소년』, 1967년 창간된 『어깨동무』, 1969년 창간된 『소년중앙』은 아동을 겨냥한 종합잡지로 창간되었지만, 어린이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만화였다.<sup>27)</sup>

50~60년대가 어린이 만화가 독점적으로 만화시장의 주류였다면 70년대부터는 성인만화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다. 군사정부의 검열제도에 숨통이 막힌 만화계는 명랑만화에서 활로를 찾는다. 이때 만들어진 어린이 명랑만화의 주인공들은 오늘날 까지도 새롭게 복간되며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음 2개의 인용문들은 70년대 명랑만화의 위상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1966년부터 시작된 합동출판사의 독점으로 인해 점차 조악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팽창된 만화의 욕구는 각각 두 가지 양상으로 발전했다. 첫 번째는 성인만화의 등장이며, 두 번째는 신문과 잡지를 기

25) 박재동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157p  
26) 한영주. 『다시 보는 우리 만화』. 글논 그림밭. 2001. 32p

27) 박인하. 『골방에서 만난천국』. 인물과 사상사. 2005. 65p.

반으로 한 명랑만화의 발전이다.<sup>28)</sup>

70년대를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주류만화는 명랑만화였다. 명랑만화는 극화나 사극과는 다른 약화풍의 50~60년대 만화의 전통을 이어간 장르였다.<sup>29)</sup>

만화평론가 박인하는 70년대 어린이 만화계를 명랑만화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70년대는 가히 '명랑만화의 시대'라 부를만하다 (중략) 1950년대 발전하기 시작한 명랑만화는 크게 잡지나 신문 연재만화와 단행본 만화의 두 축으로 발전했다. 이 중 많은 독자들에게 낯익은 작품은 잡지에 연재된 작품들이다. 70년대 명랑만화는 50-60년대 명랑만화와는 다른 지점, 즉 대중문화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sup>30)</sup>

70년대 명랑만화계의 대표작가는 단연 길창덕, 윤승운, 신문수, 박수동, 이정문이다. 길창덕은 <꺼병이>를 비롯해 <말쌍이>, <재동이>, <돌석이> 등 술한 캐릭터들을 선보이며 오늘날 고유명사화된 「명랑만화」의 기초를 다졌다. <두심이 표류기>, <요철발명왕>의 윤승운, <도깨비 감투>, <로봇찌빠>의 신문수, <별동탐험대의 고릴라>, <고인돌> (성인용과 어린이용 두가지가 있었음), <땅콩 찢콩>의 박수동 <심뿔이>, <철인 캣타우>의 이정문 등은 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일본의 개그만화를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가 가득한 개그만화장르인 '명랑만화'를 만들어냈다.

물론 1070년대에는 명랑만화만 있었던 것은 아

니다. 김형배의 <로봇 태권 브이><sup>31)</sup>와 함께 극화형 거대로봇물의 양대 산맥을 형성한 고유성의 <로봇 킹>과 1958년에 연재를 시작했으나 1970년대 8년간 『어깨동무』에 연재하여 전성기를 누린 김원빈의 <주먹대장>도 70년대에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또한 이우정의 <모돌이 탐정>도 70년대 우리만화계를 살찌운 주요한 캐릭터이다. 명랑만화캐릭터인 임창의 <뽕이>, 김삼의 <강가딘>, 정운경의 <진진돌이>도 5대 명랑만화에 회자되지는 않으나 당대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들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는 순정만화가 장르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며 조원기, 엄희자, 민애니, 송순희 등의 인기 작가를 다소 배출했으나 장르의 특성상 '캐릭터'의 비중이 낮고 당대에 회자된 만화주인공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권영섭의 <봉선이>를 제외하고는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순정만화 장르자체도 70년대 후반들어서는 한동안 공백기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60년대부터 70년대를 관통하며 우리나라 어린이 만화계를 짓누른 가장 큰 문제점은 군사정권에 의한 검열과 사전, 사후 심의 그리고 합동출판사라는 거대한 자본에 의한 만화방 단행본 시장의 독점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나와 있고 본연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28) 같은 책 62p.

29) 같은 책 65p.

30) 박인하.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5. 시공아트. 1999. 404p-405p

31) <로봇 태권브이>가 대표적인 어린이만화캐릭터 70선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김창기 감독의 동명의 만화영화화 시초이기 때문이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엄연히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본 선정 연구물의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만화 원작'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연구자주)

#### 4) 4기(분화기) 1980년대 : 보물섬과 만화왕국 길고 아이큐 점프의 태동

1980년대는 어린이만화가 만화방(이후 대본소라 불림)으로부터 분리되어 잡지와 요요코믹스류의 서점용 단행본의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된 분화기 혹은 분리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만화평론가 박인하는 이렇게 적고 있다.

1980년대 대본소 만화에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촉발된 장편서사만화의 붐은 '극화'의 유행을 가져왔다. 극화(劇畵)란 일본의 용어로 아동용 월간지에 연재되던 월단위 만화와 달리 방대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탄탄한 구성력, 실사에 가까운 캐릭터(흔히 극화체라고 이야기하는)를 갖춘 만화를 말한다. (중략) <공포의 외인구단>의 성공에 작그 받은 대본소 만화는 아류작을 양산하며 만화 수요자의 연령대를 상향조정했다.<sup>32)</sup>

이때부터 어린이는 만화방(대본소)에서 서서히 퇴출되고 빈자리는 청소년 이상의 성인층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80년대의 어린이에게는 『보물섬』이 있었다. 『보물섬』은 말그대로 만화의 '보물창고' 같은 것이었다. 어린이 교양잡지의 '부록형태로 제공되던 만화'로만 채워지던 잡지가 나왔으니 어린이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80년대를 풍미한 대부분의 어린이 만화 캐릭터도 보물섬을 통해 배출되었다.

최초의 만화 전문 잡지 『보물섬』의 창간은 1982년 10월이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용 교양잡지의 가면을 쓰고 존재하던 만화잡지는 100% 만화

만을 수록한 『보물섬』의 등장으로 만화 전문 잡지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보물섬』은 70년대의 메인스트림이었던 명랑만화를 받아들이는 한편, 1970년대 데뷔한 작가들을 포진시키며 새로운 작가들을 육성했다. 이현세의 <스카라무슈>를 창간호 표지로 내세운 『보물섬』은 이후 김수정의 <아기공룡 둘리>, 이희재의 <악동이>, 김동화의 <요정핑크>, 김철호의 <스콜피오>, 윤승운 <맹꽁이 서당>, 장태산의 <스카이레슬러>, 이두호의 <두손이>등을 연재하였다.<sup>33)</sup>

『보물섬』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80년대 어린이만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쓰였다. 『보물섬』을 필두로 이후 어린이만화시장은 만화로만 채워진 만화잡지의 시대로 온전히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에는 『보물섬』과 비슷한 편집노선을 추구하는 『만화왕국』이 탄생하여 어린이만화 시장의 분할을 요구한다.

『보물섬』의 성공은 1988년 8월 15일 『만화왕국』의 창간으로 이어졌다. 『만화왕국』은 허영만 <미스터 손>(나중에 <날아라 슈퍼보드>로 개칭), 이두호 <머털도사와 또매형>, 김형배 <고독한 레인저>, 고행석 <아카루카의 불청객>, 이진수 <소녀전사 토리>, 김수정 <작은악마 동동>, 이우정 <첩보원 보바>등 검증된 스타 작가들을 포진시켜 『보물섬』의 아성에 도전했다.<sup>34)</sup>

80년대 어린이만화계에는 이전 어린이만화와는 다른 새로운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만화주인공들이 더 이상 만화책에만 갇혀있지 않고 애니메이션과 팬시 상품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하게 된

32) 박인하. 『한국현대예술사대계』 5. 시공아트. 2005. 4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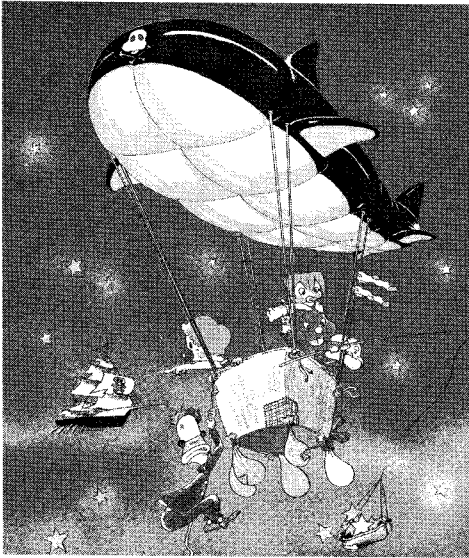
33) 박인하. 『한국현대예술사대계』 5. 시공아트. 2005. 423p

34) 같은 책. 423p

것이다.

한편, 원작의 인기는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어 갔다. <아기공룡 둘리>는 원작만화의 인기를 바탕으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후 캐릭터 팬시 상품으로 그 활용이 확산되어 가며 1980년대 후반 하니, 영심이 등과 함께 만화 캐릭터 시대를 열기도 했다.<sup>35)</sup>

여기에 이현세의 <까치>와 <엄지> 캐릭터 등도 가세하여 『떠돌이 까치』 등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림 4> 김수정. 아기공룡 둘리. 보물섬. 1983.

특히 김수정의 <둘리>는 ‘둘리나라’라는 회사까지 설립되어 다양한 2차 저작물로 변신을 하고 있고 원작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80년대 이후 인기 있는 어린이 만화 캐릭터들은

둘리의 노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 5) 5기(침체기) 1990년대 이후~ 현재

1990년대는 바야흐로 일본식 잡지만화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경쟁을 본격화한 시기이다. 대표적인 잡지가 서울문화사에서 발행한 『아이큐점프』와 대원CI의 『소년챔프』였다. 제목에서부터 일본식 소년잡지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들 잡지는 당시 범람하던 일본만화의 해적판 시대를 마감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소개하여 한국만화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특히 『아이큐 점프』에 연재된 도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 볼>은 당시 최고의 인기 만화였다. 어린이 독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넘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적인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 여세를 이어가며 『소년챔프』에 연재된 다케히코 이노우에의 <슬램덩크> 역시 어린이 독자를 포함하여 전 연령층에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으로 우리 만화 지형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슬램덩크>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어린이는 주요 독자층이 되지 못했다. 엄격히 따지면 <슬램덩크>는 청소년만화였다.

중국 고전 <서유기>를 각색한 <드래곤 볼>은 작품 자체가 90년대 만화계 지각 변화를 한 몸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드래곤 볼>은 연재초기에는 전형적인 어린이개그만화의 속성을 보였으나 10권을 넘기면서 서서히 소년 취향의 대결형 서사구조로 바뀌더니 궁극에는 ‘개그’는 완저니 배제되고 단순한 소년활극만화로 변질되고 만다.

만화평론가 박인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35) 같은 책. 435p

명하고 있다.

초기 『아이큐점프』는 ‘주간지’라는 차별화된 컨셉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보물섬』이나 『만화왕국』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 만화의 서사도 대결형 서사구조가 아닌 일관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방식이었다. 작가들도 대부분 증견작가들이어서 그동안 발표한 만화의 연장선상에 존재했다. 그러나 다이나믹콩콩 코믹스나 호호샘 코믹스 등의 이름으로 일본의 인기 만화가 무단 출판되던 당시에 『아이큐점프』는 초기 의욕적인 출발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1990년대 해적판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드래곤볼>(도리야마 아키라)을 부록으로 연재하기 시작하며 일약 일본만화와 일본만화 시스템의 급격한 이식을 주도하게 된다.<sup>36)</sup>

1990년대 들어 만화잡지 시장이 『아이큐점프』, 『소년챔프』에 의해 확고하게 재편되면서 독자층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만화시장 자체도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시장의 주인이자 중심이 되어 버렸다. 이후 창간된 잡지들도 영지, 성인지, 순정지 등이 중학생 이상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매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만화방의 후신인 대본소도 1980년대 이미 성인들의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이후 유일한 어린이 만화 통로였던 ‘잡지’마저 청소년에게 넘겨주자 어린이 창작만화 시장은 급격히 붕괴하고 만다.

본고에서 선정 한 어린 만화캐릭터 70종 가운데 90년대 캐릭터가 4개에 불과한 것 만 보더라도 당시 어린이창작만화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로 알 수 있다.

김우영의 <똥단지>를 제외하고 「안녕 자두야」의 <자두>(이빈), 「검정고무신」의 <기영이>(이우영), 「까꿍」의 <까꿍>(이충호)도 어린이 대상이 아닌 소년지나 순정지 등에 연재된 것 가운데 그나마 ‘어린이스러운’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려 뽑은 것이다.

김우영의 <똥단지>야말로 90년대 대표 어린이 만화 캐릭터 가운데 처음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획된 작품이라는 점이다.<sup>37)</sup>

김우영의 <똥단지>는 1990년 소년조선일보에 연재만화로 시작하여 1994년 <똥단지 만화일기>가 출판되면서 - 학습만화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기 전부터 - 어린이학습만화계의 강자로 군림하며 시대를 풍미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어린이 만화는 완전히 학습만화로 가득 메워지고 만다.

학습만화의 초기 형태는 1960년대 일간신문사에서 자매지 형태로 일간 어린이 신문이 속속 창간되면서 나타났다. 이 신문들은 기초 과학상식을 응용한 재미있는 현상 등을 짚막만화로 연재,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증략) 학습만화가 만화의 한 장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이다. 연재만화가 아닌 두꺼운 고급양장본 전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81년 금성

37)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린이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1990년대 이후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린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5월 9일 상명대학교 대학원 만화영상학과와 어린이 만화연구회 <아이처럼>가 공동으로 개최한 어린이만화 관련 세미나에서 어린이만화가, 출판편집자, 기관종사자, 어머니회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어린이 독자의 연령 구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아기를 벗어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36) 박인하.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1. 시공아트. 1999. 425p



출판사에서 기획, 출판한 『과학학습만화』 전집이 우리나라 학습만화의 효시로 꼽힌다.<sup>38)</sup>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어린이 만화는 학습만화중심의 특정 장르로 편중되면서 순수창작만화는 극심한 정체기를 겪고 있다.

만화평론가 박석환은 1999년 <아동독자는 없다>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대표만화 작가들은 성인(아동의 오키로 보임)만화를 그린 지 오래다. 극화체 위주의 화풍을 지닌 이들이야 극적 구성의 다변화를 꾀한다는 명분을 지닐 수 있으나, 아동만화를 그리던 만화체의 작가들까지 성인만화를 그리고 있음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인만화 응모작 중 아동이 주 소구층인 만화체(만화체가 아동물이라고 우기는 건 아니다. 보편적인 인식에 기대어 예를 들고 있을 뿐)가 10%를 넘지 않는 범위의 것도 한국 만화의 수용 계층엔 아동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up>39)</sup>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순수어린이 만화 창작기피 현상은 장래의 만화독자층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서 학습만화는 어린이만화시장을 넘어 어린이 도서 시장을 단숨에 집어 삼키고 만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부천만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만화규장각 인터넷 웹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있다.

아동도서시장은 올해도 확실히 ‘만화’의 완승으로 끝났다. 2000년 말에 처음 출간되어 올해 10월까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1020만부를 판매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비롯하여 서바이블 만화 ‘살아남기’ 시리즈, 이회재의 ‘삼국지’에 이어 지난해 말 출간되어 올해 내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마법천자문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아동도서시장의 판매 순위는 완전히 만화로 달궈졌다. 하반기에는 아동용 온라인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만화화한 ‘코믹 메이플 스토리’까지 가세하여 2004년 아동도서시장은 만화가 베스트 순위를 싹쓸이하며 천하통일을 한 셈이 됐다.

전통적인 강자인 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도 마지막권인 미국편을 7월에 출시함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이가서에서는 한국문학 100편을 만화로 옮기는 가공할(?) 기획을 선보이기도 했다.<sup>40)</sup>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 만화계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만화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어린이교양잡지의 등장이 그것이다.

고래가 그랬어, 개똥이네 놀이터, 아이찬(옛 어린이 좋은생각) 등이 만화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과거 어깨동무, 새소년, 소년중앙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래가 그랬어에는 최호철 작가의 ‘태일이’와 이경석 작가의 ‘울식이는 재수없어’ 홍승우의 ‘신세기 소년 파브르’가 단연 돋보이고 개똥이네 놀이터

38)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1999. 302p

39) 박석환. 『만화시시비비 탕탕탕』 초록배 매직스 1999. 201p

40) 김병수. 2004 한국만화 결산 만화뉴스. 만화비평 Vol.27. 2004.12.

에는 80년대 인기만화 이희재 작가의 '악동이'의 2000년대 버전 '아이코 악동이'를 비롯하여 김홍모의 '두근두근탐험대' 하민석의 '안녕 전우치'와 같은 순수창작 어린이 만화를 선보였다.

이 가운데 '아이코 악동이'는 2008년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대상을 수상하여 순수창작어린이만화가 새롭게 조명받으며 활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학습만화잡지에 가깝지만 어린이과학동아는 옛 아이큐 점프 편집진이 대거 모여 어린이 만화잡지의 성격을 전면으로 내세워 아동잡지 판매 순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 잡지에는 이충호의 생태로봇 예코, 임덕영의 미션키트맨 등이 연재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 좋은 생각 아이찬에는 귀신장군 무동으로 대한민국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김경호 작가와 삼신할머니는 아기배달부로 2007년 부천국제만화상 어린이 부문을 수상한 본 연구자가 각각 어린이 창작만화를 연재하고 있다.

본 연구자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어린이 창작만화작가들은 2007년 9월 어린이만화연구회 '아이처럼'을 결성하여 순수창작 어린이 만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위한 연구와 창작 작업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 Ⅲ. 결론

어린이만화에 있어서 캐릭터는 단순히 만화주인공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김수정의 돌리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업이며 산업이자 비즈니스다. 어

린이 만화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이미 만화의 세계를 떠나 애니메이션, 게임, 팬시 등으로 분화되어 머천다이징 되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 본연의 역할 즉 작품 속 주인공의 본분을 잃어버린다면 언제든지 독자들의 기억에서 잊혀 질 수 있다.

안석주의 씨동이 말타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린이 만화의 역사도 벌써 84,5년에 이른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술한 만화작품과 작가와 주인공들이 명멸해 갔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기억되고 회자되는 작가와 작품과 만화캐릭터들은 있다.

그것은 바로 독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린이독자들에게 만화는 여전히 강력한 문화콘텐츠다. 지금도 서점에 나가면 아동도서시장의 절반이상을 만화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린이들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만화 주인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교육과 학습이라는 미명하에 정보에 함몰되어 만화 본연의 유희로서의 기능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만화평론가 박석환에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20년 후의 만화계 변화는 확인할 필요도 없이 대동아 공영권에 흡수 될 것이다. 20년 후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노인층을 겨냥한 만화를 그리면서 지금의 꼭 두 배 정도가 되는 성공을 거둔다면 그나마 한국 만화가 존재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성공하고 있는 절반이 성인층을 겨냥한 것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우리 만화가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이 꼭 절반치라면 그것의 저력은

어린이층을 향해 있어야 한다.(1997.2)<sup>41)</sup>

순수 어린이만화가 다시 살아야 어린이만화가 살고 어린이만화가 살아야 미래의 세대를 이어갈 독자가 만들어진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씨동이, 라이파이, 꺼병이, 돌리와 같은 만화주인공 즉 캐릭터가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어린이 만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고찰은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어린이만화캐릭터가 살아야 어린이 만화가 살고, 어린이만화가 살아야 어린이 만화캐릭터가 산다. 이에 어린이 순수창작만화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제시한다.

첫째. 어린이순수창작만화잡지의 창간지원과 활성화다. 어린이만화는 위에서 살펴 본 연대기적 고찰에서도 본 바와 같이 잡지를 통한 연재와 단행본 발간이 대세였다. 2009년 현재 몇 종의 어린이 교양잡지가 발간되고 있으나 보다 만화에 대한 비중은 다소 비좁은 편이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오프라인 잡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린이만화전문 온라인 태체의 신설도 검토 해볼만하다.

둘째. 어린이 만화창작 인력의 육성이다. 현재 대부분의 만화대학 교육과정에는 어린이만화에 대한 교육이 도외시되고 있다. 좋은 어린이 만화가 창작되지 않으면 어린이 만화의 미래는 없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서 어린이만화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교원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셋째. 순수 창작 어린이 만화 공모전의 신설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작가 대상

공모전 가운데 어린이 만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 곳도 없다. 물론 기성 공모전에 어린이 만화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학습만화류를 제외하고 공모전에 응모되는 어린이 만화는 거의 없다. 이에따라 순수창작 어린이만화 공모전의 설치 는 어린이만화 부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상, 하. 시공사. 1999.
- 박기준 「한국만화야사」 부천만화정보센터. 2008.
- 곽대원 외.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 박인하. <만화, 내 아이에게 읽혀도 되는 거야?> 개똥이네 놀이터. 2009.
- 박석환, 동물소재만화-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있다. 코코리뷰. 한국만화문화연구원, 2000.
- 박인하. 『골방에서 만난천국』. 인물과 사상사. 2005.
- 손상익 외. 『한국현대예술사 대계』 1~7. 시공아트. 1999.
- 한영주. 『다시 보는 우리만화』 글논그림밭. 2001.
- 박석환. 『만화시시비비 탕탕탕』 초록배 매직스 1999.
- 김병수. 2004 한국만화 결산 만화뉴스. 만화비평 Vol.27. 2004.

41) 박석환. 『만화시시비비 탕탕탕』 초록배 매직스 1999. 202p

## ABSTRACT

# A study on the chronology of children's cartoon focused on the character

Byung Soo Kim

This study analyzed the chronology of children's cartoon through character while the children's cartoon section is planned at the Memorial Exhibition of 100th year of Korean Cartoon which will be held at the Contemporary Art Gallery in celebration of the 100th year after birth of Korean Cartoon. The approaching method based on character is regarded as the most proper and feasible in the identification of character and meaning of children's cartoon because the character in cartoon contains the bigger role and meaning than the descriptive structure of narration.

The Committee of 100th Year of Korean Cartoon, Aicheorum which is a study association for children's cartoon and Cartoon My Love Cafe<sup>42)</sup> in Naver jointly selected the 70 cartoon characters. A brief history is established based on these characters through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in seven sectors of around 10 year session such as before 1950s of quickening period and liberation,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and after 2000.

It examined the historical meaning, its reflection and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cartoon character and the cartoonist which were well-known to everybody not only the display according to chronological order. The study intended the stereoscopic illumination

on the children's cartoon and character which were favored beyond the generations.

In addition, the similarity and human relation among cartoonist to cartoonist and character to character were analyzed and traced to identify the fact that children cartoon character is not individualistic being but it lies on the extension of tradition and trend of eternal cartoon history

Finally, hopefully it will make a contribution to activate the pure creative children's cartoon in Korea through reminding the importance of character in cartoon, affirming the industrial value and reflecting the direction and perspective of pure creative children's cartoon.

Key words: Cartoon, 100th year of Korean cartoon, children's cartoon, character in cartoon.

논문 투고일: 7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09년 7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8월 19일

김병수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초빙객원교수  
(609-73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Tel : 0621-236-7802  
gagcomic@hanmail.net

---

42) Cartoon My Love Cafe (Naver) : <http://cafe.naver.com/sas7273.cafe>